

# SUNBO FAMILY vol.57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2008.10.1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 삼성 1763호선 FPSO PIPE RACK UNIT 수주

우리 회사는 향후 10년의 생존전략의 품목 중 하나인 Offshore 부문의 수주 및 생산 정책에 적극 동참, 해양 부문에서 국내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삼성중공업 1763호선 FPSO PIPE RACK UNIT를 수주하는 것을 계기로 폭넓은 성장을 할 발판을 마련했다.

프로젝트에 적합한 조건으로 특수선 의장품을 제작, 납품하기 위해 5,000평 규모의 제 2공장을 증설하였으며, 특히 초대형 MODULE을 생산하기 위해 구평 공장 안벽의 추가 매립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래 FPSO를 제작 납품한 국내 최대 기술 및 생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이번 SKARV FPSO PIPE RACK UNIT는 최대폭 10m, 길이 27m의 유닛 47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주는 BP사로, 타 선주사와 달리 제품 품질에 앞서 안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 회사 전 직원은 안전도, 안전 보호구 착용은 기본으로 하고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의식으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자재추적관리, 안전관리, Duplex SUS에 대한 높은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다. Duplex SUS(Stainless Steel)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강종으로 점차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강종으로, 기존의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Cr의 함량을 더 높이고 약간의 Mo를 추가한 강종으로

기존 SUS보다 강도 면이나 부식 방지 능력이 훨씬 뛰어나 이번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강보영 이사 와 김건우 차장을 필두로 설계 김황중 차장, 자재 하경완 팀장, 생산 김광욱 과장 등이 TFT를 이루어 실시 예정이며, 10여개의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다.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 지난 2004년 첫 FPSO가 납품 되었을 때처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전사적이고 대폭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의 성과를 이룩 해내길 기대해본다.



## 디섹 광두희 사장 우리회사 방문



지난 10월 6일 디섹 광두희 사장은 협력업체 공장실사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광두희 사장은 다대 1공장을 시작으로 다대 2공장과 구평 공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특히, 다대 2공장에 비치된 자재 단가대에 관해 "자재 별로 단가와 함께 정리가 잘되어 있다. 사실 생산부 뿐만 아니라 설계부조차 자재값을 모르고 일들을 하고 있다. 자재를 아끼는 길이야 말로 정말로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장을 해나 갈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대우중공업 신입사원 방문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주) 신입사원 18명이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입사한 신입사원들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주)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각 분야 일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받다가 실제 현장을 방문하니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존의 이론과 접목시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신입사원 외 기존사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과 더불어 앞으로도 대우조선해양(주)과의 다양한 교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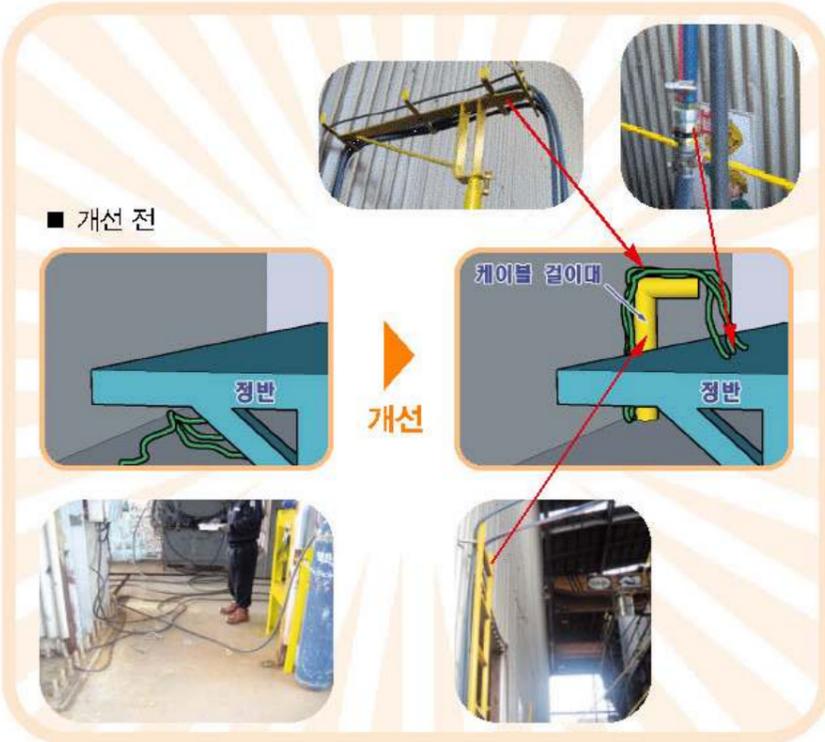
## '노인의 날' 맞아 관내 독거노인 성금 전달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하구 관내 독거노인 500세대에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성금을 모은 소정의 금액을 사하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거창하진 않지만 작은 정성의 손길이 한기가 물려오는 가을날 많은 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길 바래본다.

경영혁신

현장혁신

변화를 꿈꾸는 움직임 - 2공장 케이블 걸이대



우리 회사 장명우 상임고문은 선보공업에 오면서 외부의 흐름을 통해 "혁신"이라는 말과 의미를 접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혁신교육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 보겠다고 올해 1월부터 다양한 방면에 걸쳐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초기에 현장을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쓸고, 정돈을 하면 주섬주섬 모아서 높게 쌓아 놓기만 하고 Top점검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기에 급급하던 움직임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평공장이 실시한 케이블 걸이대가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현장 바닥에 언제나, 당연하게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보고 "왜 이게 여기에 있으면서 내 발에 걸리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그 생각을 몸으로 직접 움직여 실천하게 되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닌 우리 팀,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 어느덧 혁신보다는 실천이라는 말로 실현되고,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하여 접속 시 제품 아래에서 작업하던 것이 이제 제품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시수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으며,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발밑의 케이블 걸이가 없어져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었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새벽빛

금세 맹수라도 나올 것 같은 충청도 서산의 험준한 산골. 새벽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돈을 벌려고 객지로 떠나는 어머니를 쫓아가다 호랑이고개에서 종적을 놓쳐버린 아이였다. 그것은 그러나 새 어머니의 모진 학대와 아버지의 냉대에 비하면 그리 큰 설움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코앞에 둔 그 이듬해 겨울, 세 동생들을 건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다. 그 아이가 영등포 행 완행열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 때, 안주머니 속에는 외삼촌이 준 1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청년이 된 뒤 고향에 돌아와 화물 중개업으로 사업이라는 험난한 세계에 투신할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세금 소식

유가환급 안내



국세청, 유가환급금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는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한다.

2007년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신 분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오니 별도의 서류나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며 2007년에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08년 신규입사자 중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터넷 <http://refund.hometax.go.kr>에 가입한 후 상단의 '소득조회' - '근로소득자' 클릭 - '근로소득자 제출용 자료보기' 클릭 - 프린트 하여 재무인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일괄처리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재무인사부 송지영 사원 (260-5538)

동호회 소식

등산동호회



우리 회사 등산동호회 '우수 산악단체상' 수상

5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회사 등산동호회는 매월 30명 이상이 꾸준한 등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이 네 번째인 산악문화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 외에 다른 대회에도 다양하고 꾸준하게 참가하고 누구보다 등산을 즐기는 마음을 가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으로부터 '우수 산악단체상'을 수상했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자락에서 개최된 축제는 연맹 산악회가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산의 의미를 공감하는 대동의 장으로서 제 39회 금정제와 제 13회 금정 산악마라톤대회, 제 43회 부산 시장기 등산대회와 제 2회 시민 등산대회의 네 가지 세부행사로 진행되었다. 세부행사 중 제 13회 금정산악마라톤대회에 우리 회사 등산 동호회 회원 3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해 더욱 뜻깊은 의미를 새겼다. 특히 올해 행사는 부산 지역 방송사인 KNN의 '쇼 유랑극단' 녹화와 산악회 간 족구대회가 번외로 열려 재미를 더했으며, K2 원정대 희생자 기금 모금 등 의미 있는 활동이 가미 해 부산 지역의 산악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을 알렸다.

것이라고는 단돈 1천원이 전부였다. 그리고 30여 년 뒤, 그가 이끌고 있는 기업체들의 매출을 합치면 한 해 2조원이 넘는다.

이 책은 경남기업을 비롯하여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아그룹의 회장 성원중이 어린 몸으로 나뭇짐을 지고 한겨울에 남의 집 헛간을 전전하던 기억부터, 서울에 올라와 신문을 돌리고 약국 심부름을 하며 한푼 두푼 돈을 모아가는 이야기, 밑바닥 인생의 경험을 살려 기업을 일구어 가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자서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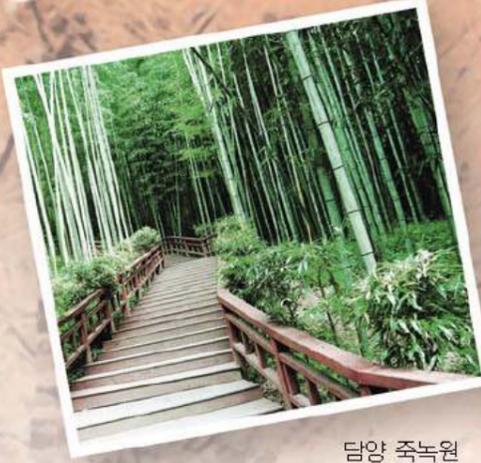
우연한 기회에 건설업계에 입문한 뒤, 몸에 밴 근면과 성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안목으로 무섭게 커나가는 성공 스토리지만, 그 자신이 진솔하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오히려 불우한 시절을 극복해가는 강인한 의지의 힘이다. 이것이 다른 기업인의 자서전과 궤를 달리하는 『새벽빛』의 특징이다.

"... 나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희망의 힘과 신념의 가능성을 은뎠으로 실증하고 싶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희망의 별은 더욱 뚜렷한 빛을 발하고, 파도가 거칠수록 신념의 돛대는 더욱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기록으로 보여주고 싶다"

여행지

전라남도 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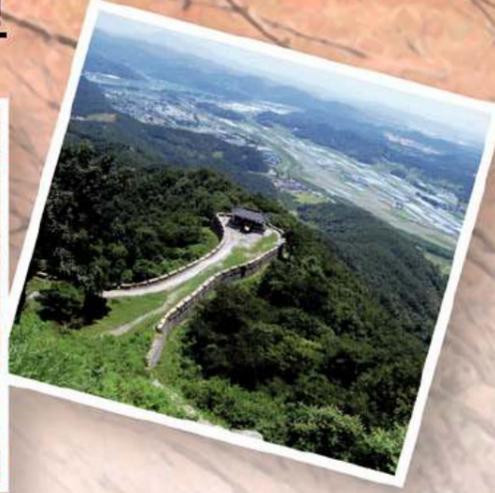
## 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담양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길



담양 금성산성

이번 호에는 가을에 꼭 가봐야 할 가족 여행지로 담양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담양은 '대나무' 고장으로 유명하다. 특히 담양 죽녹원은 유명한 모 휴대폰 촬영지,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 얼마 전 전설의 고향에서도 나왔던 곳으로 유명하며 팬더곰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죽마고우 길을 비롯해 여러 테마로 이루어진 대나무 숲은 향긋하면서도 쾌적한 대나무 향기를 몸소 느끼며 푸른 대나무 사이를 거닐며 산책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보기만 해도 속에 시원해지고, 기분좋은 설렘을 가져다주는 대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평소에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 간의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죽녹원 만큼이나 유명한 또 하나 유명한 관광지로서 담양에서 순창까지 약 20km 길이의 24번국도인 메타세콰이어 길을 꼽을 수 있다. 메타세콰이어는 공룡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로 4계절 모두 좋지만 특히 가을에 낙엽들이 연출해내는 장관은 으뜸으로 내세울 정도다. 또한, 학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차들이 다니지 않아 가족 특히 유아들이 있는 가족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며 자전거를 대여 하면 길 끝까지도 어렵지 않게 가볼 수도 있다. 메타세콰이어 길은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많으므로 카메라는 필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할 정도로 여행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맛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 이곳, 담양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는 대나무통밥(대통밥)과 떡갈비다. 갈비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서 인절미 처듯 곱게 쳐서 다지고 동그랗게 모양을 다듬어서 다시 갈비뼈에 붙여 구워내는 것이 떡갈비의 특징이다. 다른 곳과 다른 점은 갈비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굵자마자 바로 먹어야 특유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숙박은 담양 주변의 펜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화순의 금호리조트를 이용해도 좋을 듯하다. 금호리조트는 패키지로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과 실내 물놀이 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높이 5m의 직선 미끄럼틀인 스피드 슬라이더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바다 / 튜브 슬라이더 시설이 있어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을 위한 아쿠아플레이 등의 시설이 있으며, 모든 시설이 실내에 있어 4계절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용면 도림리와 금성면 금성리, 전라북도 순창군의 도계를 이루는 금성산성이 있다. 금성산성은 주위가 험준한 암석으로 둘러싸이고 중앙은 분지로 되어 있어 예로부터 요새지로 이용되어 왔다. 금성산성은 고려시대에 쌓은 것으로 전해오는데 산성의 둘레가 7,345m이고 성 안에는 곡식 2만3천석이 해마다 비축되었다 한다. 특이한 점은 금성산성 밖에는 높은 산이 없어 성문 안을 전혀 벗출 수 없는 형세를 잘 살피서 지은 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일정기간 입산통제가 되어 관광을 하기 전 반드시 담양군청(061-380-3114)으로 문의한 후 돌려보아야 한다.

이번 가을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와 낭만이 있는 담양 일대의 가족여행은 어떨까?



금호리조트

협력업체 탐방

세환산업

## '식구' 라는 한마음으로, 세환산업



세환산업은 1998년 설립되어 산업플랜트, 선박의장, 철 구조물 제작설치, 화학플랜트 장치기기 전문업체다.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는 4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체의 약 60% 정도를 선보와 거래하고 있다. 조기환 대표이사는 "김해 본사에는 약 60여명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천 공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한다.

## 정직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조기환 대표이사는 딱딱하고 무리한 직장 분위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회사직원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직원이라는 말보다 자연스럽게 식구라고 말한다. "서로에게 좀 더 개방적이고 열린 환경에서 서로 도우며 일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생산해내는 일 또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고 그것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주 생산품목의 인당 생산량 또한 높은 것도 세환산업만의 자랑이다. 대표이사의 화목한 분위기로 인해 이직률이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조기환 대표이사는 "이직률이 낮다보니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능률도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다. 이끄는 만큼 잘 따라와 주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산량이 높은 것에 비해 수주가는 낮아서 많은 업체들이 찾기도 한다고.

## 선보와 영원한 파트너로

조기환 대표이사는 "선보는 다른 업체와 달리 접대하는 관례가 없어서 좋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이념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그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아는 선보와 영원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 세환산업도 선보의 기대의 어긋나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영원한 파트너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환산업과 선보가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생생현장의 소리

구평공장 대한ENG 손종필 직장



반짝 아이템이 아닌 영구적인 아이템으로!

현장혁신의 열풍 후 일 년, 이제 혁신이 더 이상 '혁신'이 아닌 '실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지로 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지가 아니라 일을 할 때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직접 실천하자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현장을 변화하는 데 일조한 우수사례 팀을 만나보았다.

이번 현장혁신의 우수사례로 채택된 대한ENG는 실천하는 현장변화의 선두주자들이다. 아이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여러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던 점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손종필 직장은 "현장 바닥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었던 케이블을 정리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된 것은 물론 케이블을 찾으러 일을 하는 도중에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더욱 향상될 것 같다"라고 케이블 정리 후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자리에 모여 생각만 한다고 해서 아이템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손종필 직장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필요로 하는 것이 떠오르고 그것이 곧 아이템이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만들어진 아이템은 반짝 아이템이 아닌 영구적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몇 배의 생산능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장에서 실용화 되지는 않는다. 손종필 직장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첫 번째 시도를 한다고 해도 성공률이 낮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을 또 한 번 개선하고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면 미비한 부분은 발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아이템은 현장에 정착하게 된다. 오랜 과정 준비한 만큼 오랜 시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서포트 수평 아대 개선을 통해 작업을 항상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서 안전통로 확보와 자재절약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는 손종필 조장은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일 년 여, 현장혁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그는 오늘도 현장 곳곳을 돌리며,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1호 주인공 | 명성산업 오상호 조장

일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



Q 칭찬 릴레이 31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제가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호 주인공이었던 분으로부터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과연 염치없이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 하는 생각이 앞섰어요. 칭찬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남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아준 것,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준 상으로 알고 부지런하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장부분과 관련된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그 외의 일과 동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때도 많아요, 적은 인원이 한 조가 되어 능률적으로 빠르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그만큼 일 진행속도가 빠를 때도 있으니까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일을 도우려고 노력해요. 다른 동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일을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게 주어진 일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동반자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지겨울 일이 없고, 간혹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오로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요.

Q 32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저는 명성산업의 방종만 반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조장이라서 다른 동료들과 어울려서 일의 능률을 끌어올리고 효과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방종만 반장님은 훨씬 많은 동료들과 어우러져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데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하우까지 겸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귀감이 될 때가 많아요. 오랜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끈덕덕이, 곳곳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반장님을 추천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그림찾기

5개



축하합니다!

- |  |  |
|--|--|
| <b>본사생일</b>                            | <b>영업부</b>                                     |
| <b>이사</b><br>김성규(10/2)                 | 이황우(10/25)<br>문해기(10/25)                       |
| <b>설계부</b><br>민병기(10/22)               | <b>2공장(정수)</b><br>김홍달(10/8)<br>조상윤(10/14)      |
| <b>생산관리</b><br>신성인(10/19)              | <b>2공장(신일)</b><br>김인수(10/14)<br>이진식(10/17)     |
| <b>고객지원</b><br>류승진(10/22)              | <b>2공장(신택)</b><br>이재연(10/19)                   |
| <b>자재부</b><br>이창호(10/19)<br>이상훈(10/31) | <b>2공장(품질)</b><br>이현우(10/21)                   |
| <b>생산부(순해)</b><br>조영록(10/10)           | <b>입사기념일</b>                                   |
| <b>생산부(유성)</b><br>윤희동(10/22)           | 본사설계부<br>장호길(10/2)<br>장호신(10/12)<br>홍기원(10/17) |
| <b>생산부(광진)</b><br>정중교(10/18)           | <b>생산관리</b><br>김태호(10/12)                      |
| <b>생산부</b><br>전병주(10/14)               | <b>구평설계</b><br>임우택(10/13)                      |
| <b>사업기획</b><br>이기환(10/1)<br>이경식(10/4)  |  |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덕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